

주가	환율	금리
-3.31	-3.70	+0.04
1,419.23 (코스피지수)	930.40원 (원/달러)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8.08 (+3.21)	
다우(22일)	12,326.95 (+5.36)	
나스닥(22일)	2,465.98 (+11.14)	
넷케이	(노동감사질) 휴장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52엔 (-0.21)	
유로 달러 환율	1.2936달러 (+0.58)	
3년만기 회사채	5.10% (+0.03)	
클금리	4.46% (-0.03)	

1달러 = 930.40원

6개월만에 최저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며 6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방어로 930원선은 지켜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70원 떨어진 930.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10일 929.60원 이후 반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40원 떨어진 929.7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29.20원으로 밀린 뒤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930원선으로 올랐다. 93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환율은 장마감전 개인입매수세가 유입되자 931.4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차익성 매도로 930원선으로 복귀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며 원·달러 하락을 유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등산로·관광지 주변 판매 농산물 61%가 수입산

국내 등산로나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운데 40%만 국산인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전국 유명 등산로와 국립공원 관광지 84곳의 농산물 판매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파는 농산물 가운데 61%가 수입산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별 수입산 비중은 가장 많이 95%로 가장 높았고 참깨(78%), 마른 표고버섯(72%), 동글레(68%), 울무(61%), 고사리(59%), 영지버섯(5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원산지 표시율도 64%에 불과, 일반 재래시장 평균인 83%에 크게 못 미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용 풋말 5만개를 나눠줘 자율적 표시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 위반자 27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광주 국제청 집단상가 세원관리 강화

광주지방국제청은 "집단상가 사업자 단체 및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국제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지역 일부 대형상가(100인 이상) 밀집지역에서 과표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와 자료상의 물품 거래없이 자료만 주고받는 수수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부서별로 사업자단체를 집단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집단 상가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를 막고 상가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거래에 대해 감시하는 자율 체제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과세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중부세 대상 35만명에 내주 통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 대한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이 다음주 발송된다. 국제청은 23일 중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일~15일)이 다가옴에 따라 내주 중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청 관계자는 "올해 중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의 5배인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진 납부 기간에 중부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내년 2월 초 각 세무서가 발송하는 중부세 고지서를 받고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달 0.9%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정부는 과거부터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점차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대책을 쏟아냈다. 그 정책의 핵심이 투기와 열지구 지정과 주택투자지역의 지정이다.

주택투자지역의 지정은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역의 지정은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으로 높거나 분양권 전매행위가 성행해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목적·장기투자엔

물량 충분한 수완지구 중형 노려볼 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현재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만큼 지역내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전매 및 청약 자격제한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건설 분양분 중 25.7평이하의 주택 75%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된다. 청약 1순위 약예금, 부급 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의 자격이 제한된다.

지역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분양가 상대적으로 낮아... 시세 차익도 기대

가능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은 5년, 25.7평 초과와 주택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올해 분양한 수완지구의 주요 단지가 중 1가구 2주택자, 5년내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부급 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의 자격이 제한된다.

지역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예를 들어 광주 수완지구에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지역 시세를 바탕으로 차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택지개발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7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향후 5년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반대로 광주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25.7평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단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단기 투자목적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청약해야한다. 반대로 주거목적이거나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청약해야 할 것이다. <TNV 파이낸셜 클럽 팀장>



어린이회장단 경제교육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82명이 지난 22일 광주상의 7층 교육장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어린이회장단 경제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상의가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 초등경제연구소 김현경씨가 강사를 맡았다. <광주상의 제공>

로봇산업 '제2의 반도체'로 육성

정부, 클러스터 구축 등 검토

로봇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이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국제 규모의 로봇 테마파크 조성이나 로봇산업 클러스터 육성, 펀드 등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선상에 올라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경기도 성남 전자 부품연구원에서 로봇 관련 전문가와 미래학자, 문화계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 '로봇산업 정책자문'이 첫 행사를 갖고 이를 과제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럼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로봇산업의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포럼 산하 5개 팀중 로봇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게 될 시장창출팀은 로봇을 주제로 한 국제 규모의 테마파크 '로봇랜드'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로봇 시범사업과 로봇산업에 대한 금융·세계

지원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인프라조성팀은 포항 지능로봇연구소를 비롯 대전, 경남, 안산 등에 위치한 지역 거점센터와 서울산업대, 경희대가 참여하는 국가로봇 클러스터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R&D 혁신팀에서는 수요 지원형 연구개발체계 중점적으로 연구된다. /연합뉴스

고객중심 매매계약서

토공, 내달부터 적용

한국토지공사는 계약과 관련,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용지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신안에 따르면 우선 용지매매계약서와 매입신청유의사항 등 고객과의 거래시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 '갑'으로, 토공을 '을'로 전환, 앞으로 사업용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고객(피보상자)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매수인 등을 최대한 우대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외카드 사용액 최고치 또 경신

3분기 13억 1,300만달러... 지난해보다 35% 늘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의 급증으로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7~9월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은 13억1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8%나 급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2분기의 11억9천400만달러보다는 10.0% 증가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수도 194만5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5%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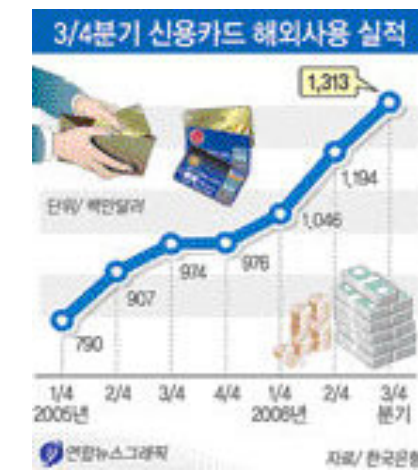
1인당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은 675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으나 전반기에 비해서는 1.3% 감소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속 급증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여름 휴가와 방학 등을 맞아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3분기의 내국인 출국자 수는 319만명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160만명)의 약 2배를 기록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5억6천4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8% 늘었으나 전반기 보다는 5.2% 감소했다.

비거주자의 1인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97달러로 전반기보다 5.3% 감소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에서도 1.8% 증가



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외국관광객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상호금융·저축銀 "장사 잘되네"

광주·전남 여수신 규모 작년보다 7배 폭증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기관의 여·수신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6년 9월중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활발한 활동으로 비은행기관의 여·수신 규모

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7배 이상 폭증했다.

올들어 9월까지 비은행기관의 수신액은 8천8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509억원)에 비해 1.97배 늘었다. 증가 원인은 9월에만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 예금품에 2천360억원이 몰리는 등 한달동안 3천936억원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은행기관의 여신(대출) 규모는 9월말 현재 3천758억원으로 전년 동기(500억원) 대비 7.5배나 급증했다. 여신이 급증한 것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저축은행, 신탁 등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한편 9월중 광주·전남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증가액은 7천899억원, 총여신 증가액은 2천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광주·목포·여수지역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한달동안 759억원이 늘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反기업정서 강해 외국투자자 안온다"

세금으로 기업 길들이기 한국이 유일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국내 기업을 미워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안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투자증진을 위한 10대 긴급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옐레토론회에서 "국내기업이 한국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거꾸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존스 전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기

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반 기업 정서가 가장 강하고 언론 역시 외국인 투자에 비판적"이라면서 "이민정책 역시 해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단순 노동인구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 환경과 관련, "아직 같 말이 많다"면서 "과세집행 문제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청과 손잡고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밖에 ▲영어교육의 질 향상 ▲현 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